

## 現代니트의 表現技法에 關한 研究

-1990年代 以後의 Collection誌를 中心으로-

崔 京 姬

湖南大學校 衣裳디자인學科 傳任講師

## A Study on the Techniques of Expression of Modern Knitwears

-Focusing on the Collection's Books of 1990's After-

Kyung Hee Choi

Full time Lecturer, Dept. of Fashion Design, Honam University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iscover the techniques and the trends of expression of modern knitwears focusing on the 1990's after. The resorts of this study is as follows:

The techniques of expression of knitwears are classified by the sections on the techniques and the styles of expression.

The divisions into the techniques are knitting, crochet, macramé, netting, knotting. And the divisions into upon the styles of expressions are color, pattern, texture, relief and seeing through

The techniques of expression on the modern knitwears are expressed characteristic of variety and composition, are expended to the art wear by translated into art.

According to a wide sense, ecology, ethnic, modern are the themes of knitwears of 1990's after. The characteristic technique of expression according to the themes are expressed by the harmony of image, yarn, color, silhouette, techniques of expression.

The modern knitwears are tried by mixed and various techniques, developed to the area of art wear, escaping from simple and practical item.

### I. 서론

복식은 인간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적인 방법과 형태의 완성을 통하여 인간의 정신과 생활을 표현하는 실제적 생활예술이다.

현대 사회의 패션은 탈공업화 사회와 휴먼웨어 시대의 인간 회복의 미래지향적 산업으로서, 현대 복식은 인간의 자아표현을 의상을 통해 나타내고자 다양

하고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되고 다품종 소량생산의 고부가가치의 복식이 요구되고 있다.

오늘날 디자이너와 예술가들이 공통적으로 당면하는 문제는 특유의 소재 개발과 기술의 노하우, 고유의 이미지의 창조이다.<sup>1)</sup> 현대 복식 디자이너들은 자유로운 표현방식에 관심을 갖고 독창적인 조형미를 창출하고 개성적인 소재 개발 및 신소재의 개발과 기존의 소재에 대한 관심을 재해석, 전통적인 기법을 가미한

수공예적인 직물로서 새로운 가능성을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현대 의상을 다양하고 독창적인 형태로 발전시키고 있고, 그 중 니트웨어는 최근 가장 패셔너블한 크라프트(Craft, 공예)인 동시에 아트(Art)로 인정받으며, 과거의 실용적이고 기능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테크닉의 발전을 보이고 있어 섬유 예술차원으로 발전하고 있다.

니트만의 근본적인 독특한 표면질감으로 표현되는 니트웨어는 소재의 신축성으로 인한 활동의 편의성 뿐만 아니라 소재의 복합성으로 디자인의 다양성, 드레이프성과 성형성에 의한 조형적인 자유로움 등의 특성으로 현대의상의 조류에 적합하여, 최근에는 디자이너 중심의 캐릭터있는 독특한 특색을 지닌 니트웨어가 세계 유명 컬렉션에 발표되어 다양한 니트웨어의 발전을 볼 수 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니트의 형태와 기법 면에서의 독창성은 놀랄만한 것이며, 그 조형적 가치는 예술성으로 인정받을 만 하다. 니트 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이나 미술의상으로서의 니트 디자인에 관한 연구에서 니트의 표현기법에 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1990년대 이후의 니트의 다양한 표현기법과 미적 특성을 연구해 봄으로서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현대 니트웨어의 디자인을 개발하고, 나아가 새로운 표현방법에 따른 창의적 표현 기법으로 니트의상에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테크닉으로 가장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니트의 표현기법을 Collections, Fashion News, Fashion Show, Gap紙에 실린 컬렉션 사진들을 통해 현대니트의 다양한 질감(texture)으로서의 표현기법을 분석하고, 현대니트에 나타난 표현기법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구체적인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니트의 표현기법의 개념과 종류에 대한 이론적인 개념을 정리한다.

둘째, 현대니트에 나타난 표현기법의 경향을 파악한다.

셋째, 현대니트에 나타난 표현기법의 특성을 규명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표현기법의 개념

복식은 인간의 미의식이나 표현의식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복식을 통한 시각적 만족의 노력은 기본 소재에 대한 끊임없는 연구로 인한 다양한 직물의 개발과 질감표현이라 할 수 있다. 직물의 질감을 변형시켜 생기는 어떤 새로운 스타일은 가장 효과적으로 개성을 추구하는 현대인의 복식 심리를 만족시키며 사람들은 복식이 제공하는 심미적 자극에 반응하게 된다.<sup>2)</sup>

20세기에 들어오면서 회화, 조각, 섬유미술, 복식의 모든 분야에서는 재질감의 강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소재의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조적인 질감의 표현을 강조하고 이에 대한 관심은 전통적인 수공예적인 기법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고 재창조하여 그 표현 양식을 다양화시키고 있다.

3차원적인 물체 즉,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모든 물체는 표면과 내용으로 성립되며, 그 표면은 각각 물질 고유의 재질감을 갖는다. 질감이란 형태, 색채와 함께 필수 구성요소 중 하나로 돌, 나무, 청동, 종이 등 실제로 물체의 표면이 갖는 특성<sup>3)</sup>이나 안료의 성질, 표현한 대상물의 재질감, 묘사한 물적 대상의 양감 등 촉각, 시각적으로 환기시키는 효과를 말한다.<sup>4)</sup> 따라서 어떤 물체를 구체화하는 데는 여러 가지 재료가 사용되며 이 재료들의 고유한 성질에 의한 표면적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질감이다. 이는 시각과 촉각에 의해 다양한 심리적 반응을 동반하게 된다. 이 질감이란 옷감의 울에서 비롯된 말로 재료, 혹은 같은 실을 짜는 방법에 따라 나타나는 표면의 시각적 효과에서 유래된 것이다.<sup>5)</sup> 직조의 근본목적은 질감을 만들어 내는 것이며, 질감이란 촉각적 특성이나 이러한 특성의 시각적인 감상으로 표현될 수 있는 천의 표면으로서 촉각적인 면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의상에 있어 중요한 재질적 요소로 사용되며 그에 따라 독특한 재료로는 기존의 천연섬유와 합성섬유 외에 실, 금속, 종이, 구슬, 가죽, 비닐, 플라스틱, 깃털, 톱밥, 코르크, 스폰지 등이 있으며, 코바늘뜨기와 뜨기(knitting), 플리팅,

스모킹, 자수, 비딩, 패딩, 누빔, 물딩, 바인딩, 올풀기, 꼴라주, 퀴팅, 터킹, 펠팅, 염기 등 다양한 기법에 의해 표현된다.

## 2 니팅기법의 분류

니트란 고리(loop)를 기본으로 해서 연결하여 한 가닥의 실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실로 뜨는 모든 것을 말하며, 레이스 뜨기나 망 뜨는 다른 수예편물 등의 전부가 포함되는 편물의 총칭이다.<sup>6)</sup>

그러므로 실의 형태로 된 모든 재료는 어느 것이나 편물재료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용구나 뜨는 방법에 따라 서로 다른 조직이 형성되며 용도도 다양하다.<sup>7)</sup> 니트웨어는 손뜨기와 기계로 뜨는 것이 있으며, 같은 소재, 재질의 실로 짠 것이라 할지라도 짜는 방식, 조직에 따라 그 표면에는 다른 시각적 효과가 나타난다. 니트웨어는 특수 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미적 예술성을 갖고 있다.

니트의 표현기법은 근본적으로 니트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표면질감에 따른 조직과 다양한 기법에 의해 어느 다른 영역보다 창의적인 표현영역이 크다고 할 수 있다.

니트가 산업혁명의 기계화로 인해서 대량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그 품질이 저하되고 실용적인 것으로 여겨져 왔는데, 뜨기가 섬유 예술적인 공예로 리바이벌되어 발전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경으로 많은 니트 수공예가(artist craftsman knitter)들에 의해서이다.

산업의 발달과 과학 기술의 축적으로 조형개념의 다변화에 따른 다양하고 자유스러운 개성표현을 위한 재료의 범위는 넓어지고 있는 가운데, 패션 디자인이 창조적인 미적 가치를 확대하고 대중화하여 생활의 질을 예술적인 조형수준으로 끌어올리고자 하는 산업 기술과 생활예술의 두가지 속성을 결합하여 제품으로 생산하는 일련의 산업적인 결과임을 볼 때 니트웨어의 표현기법은 개성적이고 패션성있는 디자인의 개발은 물론, 소재에 따른 독특한 조직과 창의적인 질감으로 조형예술로서의 성격으로 그 표현영역이 확대되어 가고 있다.

### 1) 손뜨기(hand knitting)

뜨기(knitting)는 고대 영어인 'Cnyttan', 'Conta'에서 유래되었으며<sup>8)</sup>, 손에 의해 짜여진 실(thread woven by the hand)이라는 의미를 갖는다. 이 기법은 한 가닥의 긴 실이 수직적으로 상호 연결된 고리들에 의해 형성된 그물조직 구조를 말하는데, 그 편성 방법에 의해 수편(hand knitting)과 기편(machine knitting)이 있다.

손뜨기의 기본원리로는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 아프칸뜨기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대바늘뜨기는 손뜨기의 가장 대표적인 뜨기로서 기초가 되는 코만들기로부터, 겹뜨기, 안뜨기 등의 기본적인 뜨기방법과 메리야스뜨기, 가터뜨기, 고무뜨기 등을 응용하여 니트의 구조와 질감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조직과 패턴을 만들어낸다. 일반적으로 2개의 바늘을 사용하여 평면적으로 뜨는 평뜨기(flat stitch)와 3개 이상의 바늘이나 링(ring) 바늘을 사용하여 튜브와 같은 원통형의 이음새 없이 계속 떠가는 둥근 뜨기(round stitch)가 있다.<sup>10)</sup> 전반적으로 코바늘뜨기나 아프칸뜨기보다 편지가 얇게 완성되며, 신축성이 있고 무늬도 단조로운 것부터 복잡한 것까지 다양하게 표현된다. 또한 같은 뜨기 원리를 이용한 수편기로 뜬 수편물과는 손놀림의 차이가 있어 다른 멋을 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수편기에 걸리지 않는 굵기의 실이나 독특한 질감의 실도 다룰 수 있어 색다른 질감을 표현할 수 있으며 가공되지 않은 투박한 소재의 질감과 원초적인 이미지를 잘 살린 과장된 실루엣의 비정형적인 형태미를 표현한다(그림 1).

코바늘뜨기는 코바늘을 이용하여 뜨는 총칭으로 플레인 크로세(plain crochet)라고도 하는데, 1개의 코바늘로 실을 이용하여 코를 만들고 다시 실을 걸어 끌어냄으로써 새로운 코를 만드는 것을 기본 동작으로 한다. 코를 만들 때에는 뜨고자 하는 무늬의 형식에 따라 방법을 다르게 하고 대바늘뜨기와는 달리 뜨개코의 폭과 높이의 비율이 일정하지 않으며, 몇 개의 기법에 의해 많은 변화를 줄 수 있다.<sup>11)</sup> 코바늘뜨기는 불어로 '작은 갈고리'<sup>12)</sup>라는 뜻으로, 고리들이 이전의 열에서는 수직적으로 같은 열에서는 서로 동시에 연결되어 만들어지는 편물(looped fabric)의 하나이다. 코바늘뜨기와 뜨기는 인터럽트 패브릭(interlooped fabric)의 주요한 두가지 종류인데, 영어의 'inter'가 '서로의'의

의미를 가진 것처럼 고리들이 서로 상관관계를 갖고 구성되는 패브릭이다.<sup>13)</sup>

코바늘뜨기는 사슬뜨기가 기본으로 이루어지고 그 물뜨기와 망사뜨기는 가장 많이 응용되는 기법들이다. 그리고 코바늘뜨기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모티브뜨기를 응용한 패치워크 작품도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으며 각 단위형태나 조각을 연결하는 기법으로 다양하게 응용되기도 한다. 코바늘뜨기의 공예적인 특징과 기본뜨기 기법만으로도 다양한 표현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부합되어 개성을 추구하는 예술의상 작가들에 의해 응용되고 있다. 종래의 표현범위에서 벗어난 공예기법으로서 보다 다양한 표현력을 갖고 있는 코바늘뜨기는 다양한 재료가 지닌 독특한 질감, 같은 재료라고 짜임에 따라 달라지는 질감, 기계로는 모방할 수 없는 특이한 조직을 표현할 수 있다.<sup>14)</sup> <그림 2>는 불규칙적인 그물뜨기로 코바늘뜨기하고 그 위에 코바늘뜨기로 만든 꽃모양을 아플리케하여 입체감을 주고 있다.

대바늘뜨기와 코바늘뜨기의 기법을 혼합한 아프간뜨기는 갈고리가 붙은 대바늘을 사용한다. 떠 나갈 때에는 세로로 실이 걸리고 물러뜨기 할 때는 가로로 실이 걸려 직물처럼 비교적 신축성이 적고 모양이 변하지 않는 특징이 있다. 대바늘뜨기나 코바늘뜨기에 비

하여 배색이 자유롭고 같은 뜨개코라 할지라도 떠나갈 때와 물러뜨기 할 때 색상을 바꾸거나 소재를 바꿀 수 있어 뜨개지에 다양한 변화를 줄 수 있다.<sup>15)</sup>

손뜨기는 기계뜨기에서 요구하는 획일적인 재료에 대한 제한이 없으므로 다양한 색상의 실과 굵기가 다른 재료들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서 부조적, 입체적 표현이 가능하다.

또한 손뜨기에서는 의도적으로 기법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다른 장식적인 첨가물이 용이하며, 크기의 제한이 없이 아주 작은 소품에서부터 크기가 큰 작품까지 자유롭게 제작할 수 있다. 제작과정에서 우연성으로 창의적인 표현의 시도가 가능하며, 또한 장소의 제한이 없으므로 언제 어디서든지 제작할 수 있다.

## 2) 기계뜨기(machine knitting)

기계뜨기에 사용하는 편기(knitting machine, knitting loom)는 편침을 사용하여 편침에 실이 공급되고 이 실로 바늘의 루프를 만들고 경, 위방향으로 연결되어 편포를 생산하는 기계를 말한다.

기계뜨기는 편성 형식에 따라 경편기와 위편기로 구별되는데, 위편기는 손뜨기 원리를 기계화한 것으로 편형식 횡편기와 원형식 환편기로 나뉘지며 각 편기의 한 울을 좌·우방향으로 왕복해서 정정할 필요가



<그림 1> Alexander McQueen, 투박한 소재감을 살린 대바늘뜨기 기법의 니트웨어, '99-00 A/W Collections, p. 133



<그림 2> Ernestina Cerini, 아플리케 장식한 코바늘뜨기 기법의 니트웨어, '93-94 Collections, p. 210

없으며 성형이 가능하다.

경편기는 정경 즉 수백분의 경사를 동시에 편침을 걸고 편성하며 편성은 세로 방향으로 진행하며 변화의 범위가 넓고 쉽게 무늬를 바꿀 수 있으며 경방향으로 신축성이 크다.

횡편기에 의한 니트의 기본조직으로는 평면조직(plain stitch), 고무조직(rib stitch), 퍼얼 조직(purl stitch), 양면조직(interlock stitch)이 있으며, 이러한 조직들을 응용하여 복합적인 변화조직을 개발하기도 한다.<sup>16)</sup>

1990년대 이후 컴퓨터 전자동 니트 기계의 발달로 다품종 소량생산이 가능해졌으며, 신속하고 정교한 제작 과정으로 인해 거대한 크기, 정밀하고 섬세한 표현, 반복적인 패턴, 도식화된 문양, 복잡한 디자인 등의 제작이 가능하게 되었다.

현대 과학 기술의 발전에 따른 고도의 기술로 인한 더욱 효율도가 높은 매체로 고도의 신축성과 정밀성과 다양하고 광대한 표현능력 및 가능성이 잠재된 미래 지향적인 분야로 주목되고 있다(그림 3).

### 3. 니들 아트(needle art)기법의 분류

#### 1) 마크라메(macramé)기법에 의한 표현

불어에 어원을 둔 '마크라메'는 영어로서 뱀킨과 타

월을 뜻하는 터키어 '마그라마(magramah)' 혹은 줄무늬 친 옷을 의미하는 아라비아어 '무카라(migramah)'에서 유래된 것으로 이들의 가장자리에는 마크라메 장식이 붙어있었다.<sup>17)</sup>

마크라메는 교차해서 묶는다는 의미로 고대 이집트의 직조공들은 타월의 가장자리 실들을 매듭술로 장식적인 마무리를 하였는데, 이를 중세의 장식용 술매듭의 의미에서 현재에는 매듭이라는 의미로 정착되었다.<sup>18)</sup>

일반적으로 매듭의 용도는 끈 목의 한 끝을 지을 때, 서로 맞이를 때, 끈 목을 다른 물체에 붙잡아 매거나 늘어뜨리고 묶을 때, 매듭의 구성으로 문양을 만들어 장식용으로 쓰일 때로 분류할 수 있다.

마크라메 기법은 민족의 문화적 특성과 함께 각기 다른 형태를 취하면서 발전되어 왔으나, 1960년대에 이르러 기계화에 밀려 빛을 보지 못했다. 그러나 현재는 예술가들의 창조적인 방법의 하나로 재조명받게 되면서 새로운 각도의 조형적 복식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응용되고 있다(그림 4).

마크라메의 기법에는 평매듭(square knot), 반 평결식 매듭(half knot), 나사매듭(half knot twist), 연속평매듭(consecutive square knot), 칠보매듭(alternating square knot), 조세핀매듭(The Josephine knot), 정자매듭(chinese croq knot), 수평감기매듭(hoorizontal



<그림 3> Missoni, 다양한 색상과 정교한 조직의 기계뜨기 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8 S/S Collections, p. 142



<그림 4> Nicole Miller, 마크라메 기법에 의한 원시적인 이미지의 니트웨어, '93 S/S Collections, p. 177

double half hitch), 사선감기매듭(diagonal double half hitch), 세로감기매듭(vertical double half hitch), 고리매듭(double half hitch chain), 사슬매듭(chain knot), 태팅매듭(lark's head chain), 옴매듭(overhand knot)이 있다.<sup>19)</sup>

## 2) 그물뜨기(netting)기법에 의한 표현

그물(net)은 역사가 있기 전부터 인간의 생존을 위하여 먹을 것을 포획하거나 자연환경으로부터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 중의 하나였다. 생활수단으로만 사용되어 오던 그물은 문화 발전이나 산업 발전에 의해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고 인간의 기본적 생활수단의 관념에서 벗어나 여가를 통한 인간의 미에 대한 욕구 충족 구조물로 쓰여지기 시작했다. 그물은 실, 끈 로프 등을 엮거나 매듭지어 짠 망을 일컫는 말이며 그물뜨기는 한 가닥의 실을 나무막대 위에 걸쳐 매듭을 짓고 계속 실과 실 사이를 통과시키면서 고리를 형성해 가는 그물세공기법이다.

그물뜨기의 재료는 매듭이 쉽게 풀리지 않는 실이 적당한데, 모사, 마사, 나일론, 낚싯줄, 플라스틱 등 그 재료가 다양하다. 그물뜨기 기법은 아주 간단하고 쉽지만 그물뜨기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물은 선형 요소로만 이루어져 그 어느 기법보다 직물에 대담한 공간감을 형성한다(그림 5).

그물뜨기는 다른 직물의 짜임새와는 달리 경사없이 여러 가닥 또는 한 가닥 등 개인에 따라 여러 방법으로 다른 물질로 고정시켜 매듭지어 형성하거나 꼬거나 엮기도 하면서 실과 실 사이를 통과시켜서 그물의 코를 형성해 나가는 방법이 있다. 그물뜨기의 기본조직은 크게 매듭 그물기법과 매듭없는 그물기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매듭 그물구조는 참매듭(reef knot), 막매듭(trawl knot), 단순매듭(simple knot), 사각매듭(squre knot)이 있고, 매듭없는 기법은 랏셀 트와이닝(rashel-twining), 심플 루핑(simple looping), 미노우 트와이닝(minnow-twining), 트위스트 루핑(twist looping), 루프 스티치(loop stitch), 오버랩 루핑(overlap looping) 등이 있다.<sup>20)</sup>

## 3) 매듭(nnotting)기법에 의한 표현

원시시대에 넝쿨이나 풀, 동물의 털 등 쉽게 구할

수 있는 재료들이 그 자체로 끈의 역할을 하면서 자연히 이러한 것들을 꼬기도 하고 묶어서 보다 길고 질긴 로우프(ropæ)를 만들었다. 이렇게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기법이 필요에 의해 여러 형태의 매듭을 묶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매듭뜨기의 방법으로는 가장 기본적인 오버 핸드 너트(over hand knot). 완전 매듭이라고 불리는 8자 모양 매듭(figure of eight knot), 4각 매듭(square knot), 옴 매듭(reef knot), 시트 밴드(sheet band), 락스 헤드 매듭(lark's heaad knot), 더블 하프 매듭(double half knot), 보우 라인(bow lind)등이 있으며 너덜거리는 로우프의 끝처리인 휘핑(whipping)으로 풀림을 막기도 한다. 훅 매듭(hook knot)이라고 불리는 공모양의 매듭은 장식용 단추에 사용되며, 몽키스 피스트(monkey's fist)와 중국식 단추(chinese button)등의 종류가 있으며 특히 중국식 단추는 현대 의상에 많이 애용되고 있다.<sup>21)</sup> <그림 6>은 로우프를 이용하여 가슴부분을 매듭 기법으로 볼륨감있게 강조하고 로우프의 각 가닥을 길게 내려뜨려 독특한 형태미를 나타내고 있다.

# III. 1990년대 이후 니트 디자인의 표현기법

## 1. 표현기법의 경향

### 1) 다양화

복고풍의 영향으로 클래식한 기본 니트 아이템은 지속적으로 입혀지는 가운데 에이지의 세분화 및 패션무드의 세분화에 따라 디자인의 복합화 경향을 띠고 있다. 즉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기술적인 것과 수공예적인 뜨기 기법이 각각 강세를 이루는가 하면, 미니멀 또는 지나친 장식적인 요소 등의 다양한 표현을 통해 개성있는 스타일이 보이고 있다. 이는 소재의 다양한 믹스와 개발, 그리고 창조적인 디자인 영감과 생산기술의 전자동화에 힘입어 더욱 복잡하고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더욱 개성적이고 창조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현대 니트웨어에 표현되는 이미지에 따라 표현기법과 입혀지는 방법이



〈그림 5〉 Alexander McQueen, 금속사를 이용한 그물뜨기 기법의 니트웨어, '97 S/S Collections, p. 336



〈그림 6〉 Ernestina Cerini, 다양한 매듭 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3-94 A/W Collections, p. 209



〈그림 7〉 David Valls, 전통적인 고무뜨기의 입체감을 살린 니트웨어, '00 S/S Collections, p. 548

보다 다양화되었다. 특히 코디네이트 요소가 강한 니트웨어는 어느 아이템보다도 다양화된 특성을 보여주고 있어 다양한 이미지와 토탈 아이템으로 응용되며 색상을 자유자재로 한 벌의 의상에서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고, 또한 다양한 문양, 질감 등을 통해 새롭고 독특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니트웨어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되는 기법으로는 걸뜨기, 고무뜨기, 가터뜨기, 끌어올림, 무늬뜨기, 무늬뜨기, 레이스뜨기, 양면뜨기, 꼬임뜨기가 있는데, 이들은 각기 조형개념의 다변화에 따라 자유스러운 개성 표현을 위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7〉은 전통적인 고무뜨기를 입체적으로 연결하므로서 독특한 조형미를 창조하고 있다.

최근 컬렉션에서 많이 응용되고 있는 표현기법은 뜨기에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켜 실용성 외에 장식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방법이며, 그 방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뜨기와 비딩(beading)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은 실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재질감의 변화를 줄 수 있다. 비즈는 조형적인 점에서 시작하여 선을 이루고 나아가 면을 이루며 표현되는데, 이와 같이 비즈는 형태, 색채에 의해서 서로 다른 효과를 보여주는 장식적인

요소로서 장식적인 효과를 주며, 복식에 있어서 조형성을 나타내 준다(그림 8).

뜨기와 아플리케(applique)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 방법은 장식효과를 나타내기 위해 바탕 천에 조그만 조각을 덧대는 방법으로서 뜨기 위에 코바늘뜨기를 이용한 다른 크기의 모티브를 덧대어 부조적으로 아플리케를 하고 있다(그림 9).

뜨기와 꼴라쥬(collage)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 방법으로는 뜨기 위에 이질감있는 여러 개의 체크원단으로 만든 인형들을 꼴라쥬하여 포인트를 주고 있다(그림 10).

뜨기와 패치워크(Patch Work)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 방법에서는 그런지 스타일의 여러 가지 무늬의 니트 패브릭과 서로 다른 조직의 니트 패브릭을 이용하여 불규칙적으로 패치워크한 히피 스타일을 표현하고 있다(그림 11).

뜨기와 술장식(tuft)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에서는 원래 터프트가 어떤 끝부분에 섬유나 실의 뭉치를 함께 고정시킨 다양한 술장식을 의미하는 것처럼 부분적으로 무늬뜨기를 한 후 무늬의 경계선 부분에 술장식을 하여 운동감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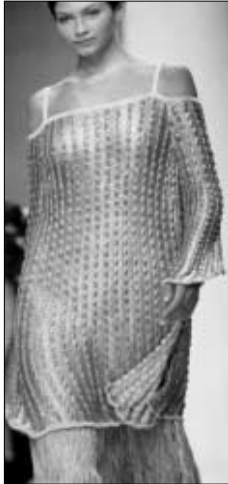
뜨기와 울풀기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에서는 소재

의 재질감에 따라 전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섬세하거나 거칠게 울퉁기 기법을 응용하여 독특한 표현효과를 연출하고 있다(그림 13).

뜨기와 엮기(weaving)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에서는 엮기가 실이 위·아래로 교차되거나 지나치는 구

조이며 실과 실을 연결, 삽입, 교차시키는 조작으로, 전체적으로 볼륨감있는 루프를 제어하여 서로 연결시켜 대담하게 레이어드에 의해 울퉁과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그림 14).

뜨기와 슬래싱(slashing)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에



<그림 8> krizia, 뜨기와 비딩의 혼합 기법으로 장식한 니트웨어, '94 S/S Collections, p. 106



<그림 9> Ernestina Cerini, 뜨기와 아플리케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3-94 A/W Collections, p. 207



<그림 10> Gaetanonavara, 뜨기와 꼴라주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4-95 Collections, p. 231



<그림 11> Moschino, 뜨기와 패치워크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3-94 A/W Collections, p. 124



<그림 12> Enrico Coveri, 뜨기와 술장식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3-94 Collections, p. 3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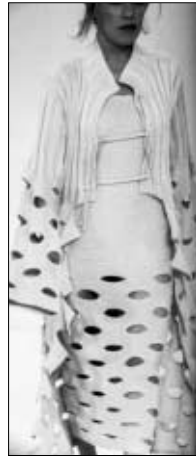


<그림 13> John Galliano, 뜨기와 울퉁기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9-00 F/W Collections, p. 110





〈그림 14〉 Norihisa Ota, 뜨기와 엮기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0 S/S Gap



〈그림 15〉 Norihisa Ota, 뜨기와 슬래시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4 S/S Collections, P. 34



〈그림 16〉 Krizia, 뜨기와 프린팅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3-94 A/W Collections, p. 43



〈그림 17〉 Madame Nicole, 뜨기와 자수의 혼합기법에 의한 니트웨어, '90 S/S Collections

서는 슬래시(slash)가 깊이 자른 절입구 트임새로 속웃이 보이도록 겹웃을 베어낸다는 뜻으로 양쪽 끝이 막히게 된 것<sup>22)</sup>을 의미하는 것처럼 장식적인 질감을 나타내며, 인체의 움직임과 동시에 나타나는 선의 확장으로 인한 조형성을 보여준다(그림 15).

뜨기와 프린팅(printing)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은 주로 뜨기 바탕 위에 직접 프린팅을 하여 나타내는데, 대담한 기법으로 붓으로 그림을 그리듯이 칠해주어 새로운 표현을 시도하고 있다(그림 16).

뜨기와 자수(embroidery)의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으로는 뜨기한 바탕 위에 섬세한 자수를 전체에 놓아 새로운 질감의 표현을 하고 있다(그림 17).

이처럼 현대니트는 니트만의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외에도 여러 가지 다양한 표현기법을 혼합시킴으로서 더욱 자유로운 표현이 가능해졌으며, 독특한 표면 효과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 2) 예술화

20세기는 역사상 그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풍성하고도 새로운 개념들, 기법들을 기초로 하여 예술의 수많은 실험들이 행해진 시기이다.<sup>23)</sup>

1960년 이후 미술의상 작가들에 의해 예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발전한 손뜨기는 일상 생활상의 실용기법들을 예술의 표현형태로 이용하려는 운동인 섬유예술의 표현매체로 자리잡았다. 이는 윌리엄 모리스(William Morris)에 의해 19세기에 일어났던 「아트 앤 크라프트」 운동과 비슷한 방식의 현대적 미술의상 운동이었다. 또한 미국 사회의 산업화, 획일화된 가치관과 지나친 물질주의 속에서 천연섬유와 민속 스타일에 대한 관심이 일어나는 등 전통적인 유산과 정신적 뿌리를 찾아보려는 세대가 나타났다.<sup>24)</sup>

이와 같은 현대적 전통적인 유산과 전통성을 추구하는 두 운동은 모두 산업사회 속에서의 비인간화를 비판하고 무결함과 덕성을 중시하면서 자연스러움과 창조적 예술성을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었다.<sup>25)</sup>

1990년대 손뜨기는 복고주의 패션 경향 속에서 섬유예술가들의 자유로운 창작적 표현양식으로 널리 채택되었으며, 생활의상의 영역을 넘어 순수예술 분야로 지속적인 발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또한 오늘날의 소비자들은 대량의 딱딱하고 획일적인 기계 생산의 의복이 아닌 편안하면서도 장식성과 심미성을 겸비한 의상을 선호하는데 이러한 현대 소비자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현대 니트의 다양하고 독특한 재료의 사용과 제한 받지 않는 표현기법의 개발로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여 미술의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다.<sup>26)</sup>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실 이외에도 비일상적으로 사용되는 와이어(wire), 코드(cord), 리본(ribbon), 밴드(band), 테이프(tape), 플라스틱(plastic), 깃털(feather), 가죽(leather), 인조가죽 등을 길게 실처럼 잘라서 사용하기도 하고 실의 굵기와 모양 등을 변형하여 염색과 더불어 훌륭한 질감을 만드는 등 새롭게 개발된 풍부한 소재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또한 제작 도중이나 완성된 편물표면 위에 실 이외에도 구슬, 세퀸(sequin), 조개, 상아조각, 동물의 털, 돌맹이 등과 같은 타재료에 의한 첨가물이나 오브제적 요소를 첨가하기도 하고, 뜨기 위에 장식용 구슬과 세퀸을 부착함으로써 보다 색시하고 장식적인 효과를 준다(그림 18).

특히 코바늘뜨기는 예술적인 가치와 실용적인 부분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기법으로 손으로 작업해야 하는 수공예적인 특징 때문에 고급의상점(haute couture)과 예술의상에서 다양하게 응용되고 있다.

코바늘뜨기는 1960년대 후반 미국을 중심으로 싹트기 시작한 예술의상 운동을 통하여 뜨기, 직조, 퀴팅, 종이작업 등의 기법들과 함께 표현기법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하게 되었는데, 현대의상에 있어서 코바늘



<그림 18> Julien Macdonald, 세퀸으로 장식한 니트웨어, '98 S/S Collections, p.346

뜨기는 의상 전체에 또는 직조, 뜨기, 마크라메, 매듭 등과 같은 다른 기법과도 혼합하여 부분적으로 응용되기도 하며, 동선, 플라스틱, 가죽, 종이, 깃털 등 다양한 재료와의 혼용도 가능하다. 코바늘뜨기 기법은 특수한 질감과 더불어 제한없는 높이와 넓이로 연결되는 삼차원의 예술세계를 표현하기에 용이한 기법으로 자유로운 현대의 표현력을 발휘함으로써 섬유예술의 조형범위가 매우 넓다.<sup>27)</sup>

이처럼 니트웨어는 특수 질감의 소재와 조직의 변화에 따라 인체의 실루엣이 극도로 표현되는 미적 예술성을 가지고 있다

## 2 패션테마에 따른 표현기법 분석

1990년대는 자연과 환경에 대한 인식과 중요성이 패션에 부각되면서 리사이클 패션이 나타났고, 이콜로지 테마가 1980년대에 이어 더욱 확산되었다. 또한 물질적인 풍요보다는 마음의 풍요를 중시하며, 정신적 세계에 대한 향수로 인해 과거와 미래, 동양과 서양이 독특하게 재구성되어 에스닉 스타일, 그랜지 스타일, 네오 히피 스타일, 네오 클래식 스타일 등이 1990년대에 나타났으며,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특별히 어떤 양식이 정해져있지 않고 잘 어울린다고 느껴지는 것을 규칙에 얽매이지 않게 표현함으로써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으로 발전하였다.<sup>28)</sup>

이에 따라 1990년대의 니트웨어에서의 대표적인 테마별 표현기법을 정리하여 보면, 이콜로지, 에스닉, 모던으로 나뉘어지며 그 내용은 <표 1>과 같다.

이콜로지 테마에서는 많이 보여지는 편안한 실루엣에 중간 톤의 색상에 의한 배색이 많이 보이며, 다양한 실들의 생산과 기계의 발달로 여러 색이 혼합되거나 단계적으로 염색한 실을 사용한 그라데이션 기법이 있다(그림 19).

가장 다양하고 아름다운 영감을 제공하는 자연물의 대부분이 문양으로 이용되며, 특히 꽃이나 동물의 문양이 널리 사용되는데 코바늘뜨기한 새를 덧붙인 기법으로 변화를 주면서 새의 문양을 사실적으로 나타내고 있다(그림 20).

니트소재가 갖는 재질감, 촉감 등의 특징을 살려 그

〈표 1〉 테마별 니트웨어의 표현기법 분석

테마	이미지	소재	색상	실루엣	표현기법
이콜러지	자연스러운 소박한 편안한 겹쳐입는	모, 면, 마 등의 다소 굵고 거친 천연소재 셔닐안 네프, 부클레 등의 팬시안 중번수 이상의 멜랑주안 트위드안 모헤어등의 헤어리안 투박한 테이프사	아이보리, 베이지, 브라운, 그레이, 블루, 카키 등의 자연감각의 색상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톤 인톤, 톤온톤배색 그라데이션배색	루즈 빅	핸드니팅 성근 조직변화의 기계니팅 자연의 문양 망조직 단순한 민자, 고무뜨기 크로세 패치워크 마크라메 울풀기 슬래시 투공성을 살린 네트 부조적 기법 자수 프린트 등의 혼합기법 질감에 의한 표현기법
에스닉	원시적인 민속풍의 장식적인 네오 히피	투박한 질감의 태번수 면·마·모사 장식효과의 팬시안 금속사 광택감을 살린 비스코스, 아크릴혼방	레드, 오렌지, 그린, 퍼플, 엘로우, 바이올렛 등의 강렬한 비비드 색상 골드, 실버  멀티 컬러드	튜닉 스트레이트	민속적 문양 마크라메 네트 너트 엮기 울풀기 아플리케 패치워크 슬래시조직 비딩 퀵팅 수공예적기법 및 혼합기법
모던	심플한 스포티한 절제된 활동적인 세련된 지적인 미래적인	모, 면, 건 등의 천연소재 세번수의 비스코스, 레이온, 아크릴 약간의 표면효과를 준 변화사 도회적인 감각의 트위드, 멜랑주안	도회적인 베이직 컬러 액센트 컬러: 레드/그린/핑크/엘로우/블루  바이컬러 배색	피트 슬림	전통기법에 의한 조직 문양(문자, 예술사조, 추상, 그래픽, 기하학적) 규칙적이고 치밀한 조직, 섬세한 씨스루 자동화에 의한 정교한 자카드문양과 다양한 조직의 믹스&매치

이미지를 질감으로 나타내는 표현기법으로서 원사의 특징을 잘 살린 기법의 변화로 독특한 조직으로 니트만의 개성적인 질감을 만들거나 다양한 굵기의 실을 사용하여 조직의 변화를 나타내기도 한다(그림 21).

그 외에도 테이프사, 가공되지 않은 거칠고 굵은 원사를 이용해 독특한 질감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독특한 다른 재료인 종이, 필름, 금속, 비즈, 가죽 등의 이질적인 재료를 사용하여 새로운 질감을 개발하기도 한다(그림 22).

에스닉 테마에 있어서 다색의 컬러의 배색에 의한

표현만으로도 강렬한 에스닉한 이미지를 준다(그림 23). 한편 다양한 민속적인 문양을 디자인의 모티브로 한 니트웨어는 에스닉의 유행경향에 맞추어 보다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되어 널리 쓰여지고 있다.

부조적 질감을 표현하기 위해 코바늘뜨기나 뜨기에 의한 방법 외에 아플리케, 꼴라쥬, 자수, 비딩, 퀵팅, 패딩, 울풀기 등을 이용하거나, 니트의 드레이프성을 이용하여 슬릿을 주면서 드레이프성을 살려 독특한 조형미를 살리고 있다(그림 24).

한편 과장되게 신체를 드러낼 정도로 시스루적 기법



<그림 19> Krizia, 이콜로지 이미지의 그래픽 디자인 배색 니트웨어, '94 S/S Collectiona, p. 1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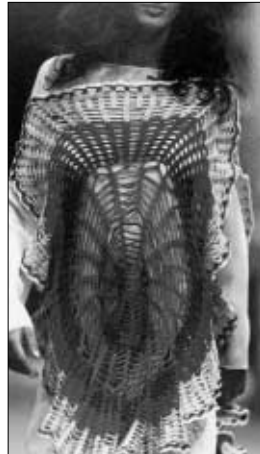
<그림 20> Les Copains, 이콜로지 이미지의 동물문양 니트웨어, '93-94 Collections, p. 191



<그림 21> Tsumori Chisato, 이콜로지 이미지의 질감을 살린 니트웨어, '97-98 A/W Collections, p. 200



<그림 22> Alexander McQueen, 비일상적 소재의 손뜨기에 의한 니트웨어, '99 S/S Collections, p. 19



<그림 23> Alberta Ferretti, 코바늘뜨기 기법의 다색 컬러배색한 니트웨어, '91 S/S Collections, p.1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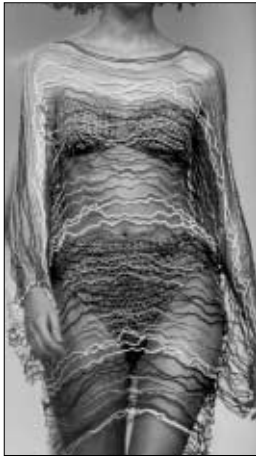
<그림 24> Junko Koshino, 니트의 드레이프성을 살려 슬릿의 효과를 준 니트웨어, '93-94 S/S Collections, p. 328

을 강조하여 에스닉 분위기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5).

모던 테마에 있어 기하학적 문양은 거의 평면적인 조직에 많이 쓰이며, 대담한 배색과 심플한 디자인의 조화가 현대미를 나타내고 있다(그림 26). 또한 문양을 규칙적으로 배열하거나, 자유스러운 형태로 나타내어 스포티한 분위기를 낸다. 한편 추상적인 문양은 다양한 색상의 무늬를 나타내거나 추상회화를 변형시켜

보다 자유롭게 표현된다.

의상 전체를 한 화면으로 표현하는 방법인 그래픽적 문양과 바탕에 문자로 표현하는 문자에 의한 문양은 현대적이고 모던한 이미지에 어울린다(그림 27). 고도의 기술력을 바탕으로 다양한 테크닉의 조직감을 살린 심플한 스타일이 하이테크한 소재에 의해 표현되고 있다(그림 28).



<그림 25> Kimijima, 과장된  
시스루 기법의  
니트웨어, '91  
S/S Fashion  
Show, p. 288



<그림 26> Manuel Pina, 모던한  
이미지의 대담한  
면분할과 배색의  
니트웨어, '91 S/S  
Collections, p.251



<그림 27> Fendi, 로고화된  
그래픽적 문양의 니트웨어,  
'97 S/S Collections, p. 213



<그림 28> Missoni, 하이테크  
소재의 심플한 니트웨어,  
'98 S/S Collections, p. 142

#### IV. 결론

패션에서의 재질감의 강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면서 소재의 특성에 가치를 부여하고 부조적인 질감의 표현을 강조하며, 전통적인 수공예적인 기법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 재창조하여 그 표현양식이 다양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양상과 다양한 테크닉으로 가장 패셔너블한 아이템으로 중요하게 인식되어 온 1990년대 이후에 발표된 현대니트의 표현기법에 대해 살펴보았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니트의 표현기법은 기법별로 구분하면 크게 뜨기에 의한 기법과 그 외 니들아트에 의한 기법으로 구분된다. 뜨기에 의한 표현기법은 대바늘뜨기, 예술적 가치와 실용성을 동시에 추구할 수 있는 수공예적인 기법으로서의 코바늘뜨기, 아프간뜨기의 손뜨기와 기계뜨

기로 구분된다. 새로운 각도의 조형적 복식을 표현하기 위한 니들아트의 기법에는 대표적으로 마크라메 기법에 의한 표현, 그물뜨기 기법에 의한 표현, 매듭 기법에 의한 표현이 사용된다. 현대 니트웨어는 과학 기술의 진보로 인한 뜨기 기계의 개발로 다양한 성능을 지닌 기종에 의하여 섬세하고 정교한 표현, 반복적인 패턴, 복잡한 디자인 등이 가능해졌다. 코바늘뜨기, 마크라메, 그물뜨기, 매듭기법은 원시적인 요소가 그대로 적용되기도 하며 의상의 장식적인 용도에 사용되기도 한다. 현대 니트웨어의 이러한 원시성향의 기법들은 기계화에 의해 대량생산이 가능해져서 새로운 니트웨어의 표현방법으로 부상되고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니트 디자인에 나타난 표현기법 경향을 살펴보면 표현기법의 다양화, 예술화 및 패션 테마에 따른 복합화를 들 수 있다.

표현기법의 다양화로는 소재의 다양한 믹스와 개발, 그리고 창조적인 디자인 영감과 생산기술의 전자동화에 힘입어 더욱 복잡화되어 정교하게 디자인되어, 더욱 개성적이고 창조적인 예술경지에 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뜨기에 다양한 기법을 접목시켜 실용성 외에 장식성과 심미성을 강조하는 혼합기법에 의한 표현방법을 들 수 있다. 즉 니트만의 전통기법을 사용하는 외에도 뜨기와 비딩, 아플리케, 꼴라쥬, 패치워크, 숄장식, 역기, 슬래시, 자수, 올풀기 등의 다양한 표현기법을 혼합시켜 더욱 자유로운 표현과 독특한 표현효과를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다.

표현기법의 예술화에서는 1960년대 이후 미술의상작가들에 의해 예술의상의 한 영역으로 발전한 손뜨기가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다양하고 독특한 소재의 사용과 제한받지 않는 표현기법의 개발로 창의적 표현영역이 무한하여 미술의상으로까지 발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점점 더 전문화되고 창조적으로 표현되어 니트 고유의 특성과 다양한 재료의 사용, 조직의 변화, 표현양식의 다양화 등에 따라 풍부한 창조적 아이디어와 미적 개념을 표출시키는 표현매체로서의 능력을 자유로이 발휘하고 있으며, 또한 일상적 의상형태의 표면 위에 예술적 주제 및 이미지를 정교하게 표현하기도 한다.

1990년대는 이콜로지의 강세와 에스닉, 그랜지, 네오 히피, 네오 클래식 스타일 등이 복고조와 함께 유행하였는데, 계속되는 포스트모더니즘 사조의 영향으로 다양한 스타일이 혼합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 중 니트웨어에 많이 표현되는 대표적 테마별 표현기법을 분석한 결과 이콜로지, 에스닉, 모던의 테마가 가장 대표적인 테마로 사용되고 있고, 각각의 이미지에 맞게 표현기법이 다양하고 독창적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와 같이 현대니트의 표현기법은 니트의 신축성, 다공성, 유연성 등의 특징으로 인하여 활동적인 현대인의 의상으로 적합하며, 성형성과 드레이프성에 의한 조형의 자유로움 등으로 더욱 다양화되고 예술화되며, 각각의 테마별로 독창적인 이미지를 창조하기 위해 소재, 색상, 실루엣, 표현기법이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날로 창조적이고 예술적인 형태의 의상으로 발전해가고 있다. 이로써 단순하고 실용적인 아이템으로서의

니트에서 탈피하여 보다 복합화된 방법에 의해 다양한 표현구조로 인해 고부가가치를 제공하고 있고, 소재와 표현방법과 다양한 주제에 의해 다른 패션 아이템에서는 표현할 수 없는 독창적인 표현을 할 수 있으며, 이는 섬유예술로서 승화되어 수공예술로 계속 시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참고문헌

1. 조규화, 복식미학, 수학사, 1987, p. 276.
2. Mary Ellen, Joanne B, Eicher, 가시적 자아, 이유헌, 이은숙 역, 경춘사, 1990, p. 74.
3. 김상순, 구성, 미진사, 1982, p. 22.
4. 한국미술연합사, 미술사전, 1989, p. 688.
5. 이경성, 미술이란 무엇인가, 일진사, 1976, p. 39.
6. シルベ編物研究會, 編物教科書, 東京:シルベ編物研究會總本部, 1969, p. 2.
7. 이순홍 외, 편물, 서울:문교부, 1987, p. 3.
8. 이정옥 외, 패션과 의생활, 형설출판사, 1995, p. 99.
9. 김상문 외, 제편공학, 문련사, 1982, p. 69.
10. Rae Compton, Knitting guide, London, hamlyn, 1980, p. 10.
11. 이순홍, 편물, 수학사, 1997, p. 79.
12. Jennifer Harris, Textiles 5,000 Years,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93, p. 49.
13. Irene Emery, The Primary Structures of Fabrics, Washington D. C: The Textile Museum, 1966, pp. 39-43.
14. 어승현, 크로세 기법을 응용한 의상디자인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9, p. 14-22.
15. 이순홍, 앞 글, p. 80.
16. 구방희, 현대 니트웨어에 미친 미술의상의 영향

- 에 관한 연구, 효성대학교 대학원, 1994, Opp. 38-39.
17. Hallen Bress, Once upon a time: The Macrame Book, New York: Charles Scribners Sons, 1972, p. 227.
18. Francesca Morris Groovy, Thing to make pyramid communications, 1972, p. 94.
19. 이윤희, 래핑과 코일링 기법을 응용한 복식디자인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0, p. 30.
20. 이윤희, 앞 글, p. 27.
21. 구방희, 앞 글, p. 44.
22. 박기완, 복식용어사전, 유진문화사, 1984, p. 184.
23. Jack Lener Larsen, Beyond Craft: The Art Fabric,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Company, p.11.
24. Debby Robinson(1987), The Encyclopedia of Knitting Techniques (Emmaus, PA: Rodale Press), p. 12.
25. Julie Schafler Dale, Art to Wear, New York: Abbeville Press Inc,1986, p.12.
26. 최경희, 현대니트웨어 디자인의 변천과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패션비즈니스학회지, 3-4, 1999, p. 128.
27. 이윤희, 앞 글, p. 30.
28. 최경희, 앞 글, p. 119.